

KIA 공격야구의 그림자 '수비 구멍'

내·외야 곳곳 균열 ... '실책 1위' 불명예



매서워진 창, 무디어진 방패. KIA는 '2사 타이거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집중력 있는 타격을 선보이며 개막 후 3경기에서 평균 득점 7.7 점을 기록했다.

기대를 모았던 안치홍이 3경기에서 침묵하고, 이범호도 단 2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그친 가운데에서도 그라운드를 유유히 누빈 김주찬을 앞세워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공격 야구를 보여줬다. 하지만 화려해진 공격 뒤에 '수비'라는 그늘이 보인다.

선동열 감독은 을 시즌을 앞두고 '선수비 후공격'을 얘기하면서 수비를 강조했다. 개막전 라인업부터 공격보다는 안정에 초점을 맞춘 수비형으로 꾸렸다.

시범경기에서 불을 뿜었던 신중길 대신 노련한 김원섭을 유격수로 나열했고, 안방마님 자리에도 공격형의 차이민이 아닌 수비형의 김상훈을 앉혔다. 수비를 우선으로 해서 역공을 벌이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내·외야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

시범경기에서 무결점 수비를 과시했던 내야에서 먼저 실수가 나왔다. 호수비 열전으로 눈길을 끌었던 유격수 김선빈이 넥센과의 개막전 2회 수비에서 악송구를 하며 2013시즌 첫 실책의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이 됐다. 개막전 연습에서 발목을 짚지었던 김선빈은 부상부위에 대한 부담으로 이날 아슬아슬한 수비를 하며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이범호의 대주자로 들어갔던 홍재호도 1점차 박빙의 승부가 벌어진 9회 아찔한 실책을 기록하면서 KIA는 첫날부터 2개의 실책을 적었다. 지난 31일에는 통산실책이 5개에 불과한 김원섭이 공을 더듬으면서

'선수비 후공격' 외치지만

잇따른 실책에 아슬아슬

불편불안 겹쳐 마운드 부담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내줬다. 1일 경기에서도 김원섭이 공을 뒤로 빠트리며 등 두 경기 연속 실책을 기록하면서 2일 경기가 끝난 뒤 KIA는 실책 1위(4개)팀이 됐다.

어렵게 마운드를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믿었던 수비까지 불안한 출발을 하면서 KIA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KIA는 에이스 윤석민의 부상과 김진우의 지각 출발로 임시 선발진을 꾸렸다. 볼펜도 예상처럼 약점을 보이는데다 수비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마운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막전 김선빈의 실책은 실점으로 이어졌지만 타선이 이를 상쇄하면서 8연패를 탈출할 수 있었다. 2일 1회부터 나온 김원섭의 실책도 실점의 발미가 됐지만 한화가 3·9회 연달아 수비 실책을 기록하면서 KIA가 9·5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방망이의 힘과 상대의 실수로 아슬아슬하게 실책의 뒷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타선의 침체 혹은 정교한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 뻔하다. 마운드가 완성되지 못한 만큼 KIA에게는 효율적인 투구를 위한 야수진들의 집중력 있는 수비가 절실하다.

KIA는 3일 공·수에서 부진한 김원섭을 대신해 김상훈을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키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내야의 수비가 웃다 울었다. 안치홍이 2회 최진행의 안타성 타구를 멋지게 낚아챘지만 4회에는 김선빈이 김태균의 강습타구를 빠뜨리고 말았다.

KIA에게 강해진 창의 힘을 더해 줄 탄탄한 방패가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지난 2일 대전한밭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한화 최진행의 뜬공 때 KIA 2루수 안치홍과 유격수 김선빈이 충돌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3일 저녁 대전한밭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 1회 초 1사에서 KIA 김주찬이 손목에 공을 맞고 고스트러워하고 있다.

악! ... 김주찬 손목 골절

오늘 수술, 6주 이상 결장 불가피

KIA 또 '잔인한 4월' 오나

호랑이 군단에 부상 비상이 걸렸다. KIA 타이거즈의 김주찬이 3일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왼손목 골절상을 당했다. 4일 수술을 받는 김주찬은 6주가량 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번 타자겸 좌익수로 출전한 김주찬은 첫 타석에서 한화 타자 유창식의 3구에 왼쪽 손목을 맞았다.

김주찬은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했다. 통증에도 불구하고 1루에 걸어나가면서 공격을 완료한 김주찬은 곧이어 2루 베이스를 홈치며 무서운 기동력을 발휘했다. 이어진 이범호의 우전안타에 홈까지 파고들면서 선취득점도 기록했다.

1회초 공격이 끝난 후 김주찬은 곧바로 병

원으로 후송돼 정밀 검진을 받았고, 골절 진단을 받았다.

김주찬이 '부상 투혼'으로 프로 데뷔전에 나선 투수 임준섭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지만 정밀 검진 결과 골절 진단을 받으면서 선동열 감독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김주찬은 빠른 발과 거침없는 타격으로 KIA 공격의 핵으로 떠올랐다.

부상투혼 속에 5개의 도루(성공률 100%)로 4번째 득점에 성공하며 테이블세터로 완벽 활약을 했다. 또 이날 한 타석을 포함 개막 후 12타수 6안타(타율 0.500), 0.800의 득점권 타율로 7타점을 수확하며 해결사 역할까지 겸했다.

팀의 3승을 책임진 김주찬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KIA에게는 '잔인한 4월'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희망投'

메이저리그 데뷔전 10안타 패전 혼쭐

6.1이닝 1실점 QS ... 감독 신임 얻어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디펜딩 챔피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물' 투수 류현진(26·LA 다저스)이 역사적인 미국프로야구 데뷔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를 하고도 패전의 멍에를 졌다.

류현진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디펜딩 챔피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6.1이닝 동안 안타 10개를 맞고 1점을 졌다.

그는 팀이 0-1로 뒤진 7회 1사 2·3루에서 로날드 벨리사리오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이후 유격수 저스틴 셀러스의 홈 송구 실책으로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아 류현진의 실점은 3점으로 늘었다. 실책에 의한 실점이기 때문에 자책점은 1점에 그쳤지만 팀이 0-3으로 패하면서 류현진은 패전투수가 됐다.

그는 80개의 공을 던져 55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았다.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를 찍었고 삼진은 5개를 잡았다.

류현진은 이날 좌구 제구에 애로를 겪고 거의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며 흔들렸다. 하지만 안타 10개가 모두 단타였고, 야수진이 3차례나 병살 수비로 도움을 줬 실점을 최소화했다. 사사구를 내주지 않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류현진은 1·2회 대량 실점 위기에서 홈런에게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경기 시작과 함께 양철 파관에게 빗맞은 중견수 앞 안타, 후속 마르코 스퀴타로에게 3루수 앞 번

트 안타를 내줘 순식간에 실점 위기에 몰린 류현진은 중심 타선과 맞섰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MVP인 과블로 산도발과의 대결에서 류현진은 3구째 낙차 큰 커브를 던져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한숨을 돌린 류현진은 작년 내셔널리그 MVP인 버스터 포지를 3루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타로 요리하고 한숨을 돌렸다.

2회에도 헌터 펜스, 호아킨 아리아스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무사 1·2루 고비를 맞았지만 토레스를 병살타로 처리한 뒤 브랜던 크로퍼드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불을 껐다.

류현진은 타선이 한 바퀴 돈 4회 1사 후 포지, 펜스, 아리아스에게 연속 3안타를 맞고 결국 실점했다. 그는 6회 산도발, 포지, 헌터 등 중심 타선을 제물로 이날 첫 삼자범퇴를 완성했다. 특히 포지를 풀 카운트 접전 끝에 체인지업으로 삼진 처리하고 헌터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았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선두 아리아스를 유격수로 실책으로 1루에 내보낸 뒤 토레스에게 우전 안타를 맞고 바통을 벨리사리오에게 돌려줬다.

한편 타석에도 선 '우타자' 류현진은 이날 3루수 땅볼, 1루수 땅볼 등 2타수 무안타로 물러났다.

류현진은 8일 오전 5시10분 피츠버그 파이어와츠와의 홈경기에서 두 번째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류현진 첫 경기 이닝별 투구내용 및 경기 성적

이닝	1	2	3	4	5	6	7
안타	0	0	0	0	0	0	10
실점	0	0	0	0	0	3	0
삼진	0	0	0	0	0	0	5
홈런	0	0	0	0	0	0	0
볼넷	0	0	0	0	0	0	0
탈삼진	0	0	0	0	0	0	0
구속	0	0	0	0	0	0	80

6.1이닝 10피안타, 5탈삼진, 3실점(1자책) 패전투수 투구수 80개(55스트라이크, 25볼)



류현진(26·LA 다저스)

'KBO 프로야구 2013' 앱 출시

KBO 공식 어플리케이션 'KBO 프로야구 2013'이 출시됐다.

'KBO 프로야구 2013'은 KBO 공식 기록 통계 업체인 스포츠투아이(주)에서 제작했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실시간 문자중계, 경기장 정보 및 날씨, 일정 및 결과, 팀·선수 순위, 팀·선수 기록, 채팅방, NEW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퓨처스리그 일정 및 결과도 제공한다.

또 응원팀과 선수를 설정하면 라인업과 득점 상황을 알람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KBO 프로야구 2013'은 무료이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T스토어, 오즈스토어, 네이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창초 광주 초등 야구 정상

준계대회

수창초가 2013 광주시 준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수창초는 3일 본량야구장에서 대회 결승에서 서석초를 9-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천안흥타령이 예선대회를 겸해 열렸으며 1·2위 팀인 수창초와 서석초가 오는 6일 광주대표로 출전한다.

한편 이번 대회를 비롯한 광주지역 아마 야구대회의 자세한 결과는 광주시야구협회 홈페이지(http://ggb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아마 야구팀 소개와 성적, 지역 출신 프로선수 현황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